

상위 스플릿 가는길 강원 돌풍 잠재워라

광주FC, 오는 7일 강원FC 원정

‘공격 선봉’ 이희균·신창무 주목
알토란 활약 가브리엘 존재감 보라
7월 6경기 소화 지옥의 레이스 돌입
‘실리 축구’...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프로축구 광주FC가 7일 오후 7시 강릉종합운동장에서 강원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21R 원정경기를 갖는다.



광주FC가브리엘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지난 20R에서 제주UTD를 꺾고 7위로 오른 광주가 올 시즌 돌풍의 팀 4위 강원과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펼친다. 광주는 강원과의 2R 홈경기에서 4대2로 짜릿한 역전승을 했다. 최근 10경기 전적도 광주가 4승 4무 2패로 앞서고 있고, 최근 전적은 2승 2무로 광주가 우위에 있다. 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광주는 강원 원정도 승리로 장식해 상위 스플릿 진입을 노리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이희균과 신창무의 활약에 기대를 건다. 지난 경기 복귀전을 치른 이희균은 투입되자마자 밀집 수비를 뚫는 드리블 돌파와 영리한 연계 플레이로 결승골을 이끌었다. 리그 첫 골을 신고한 신창무도 패조의 컨디션으로 출격 준비를 마쳤다. 매 경기, 자로 잰 듯

한 크로스로 결정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고 우려한 탈압박과 기교 넘치는 슈팅 등 테크닉도 뛰어나 루카 모드리치를 연상케 한다는 평가다. 외국인 선수들도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가브리엘이 5골 3도움으로 알토란같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그동안 베일에 감춰있던 센터백 브루노도 출장 시간을 늘리면서 차츰 변준수의 부상 공백을 메우고 있다. 현재 리그 4위를 달리고 있는 강원은 지난 주말 인천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시즌 9득점 1도움을 기록한 야고가 팀을 떠남에 따라 전력 공백이 생겼다. 반면, EPL 상위권 클럽에 관심을 받고 있는 신성 양민혁을 비롯해, 윤정환 감독의 총애를

받는 이상현, 김이석, 황문기 등 빠르고 공격력 좋은 선수들은 광주 수비가 더욱 경계해야 할 상대들이다. 광주는 이번 주말 강원 원정에 이어 주중 울산 원정 경기까지 원정 2연전을 치른다. 리그 상위권에 오른 두 팀과의 원정 대결인 만큼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7월에도 코리아컵을 포함해 총 6경기를 치러야 하는 광주로선 차곡차곡 승점을 쌓는 실리 축구와 빠른 경기 일정으로 지친 주전 선수들을 대체할 교체 자원들의 고른 활약도 절실히 요구된다. 제주전 승리로 한숨 돌린 이정호 감독이 이번엔 과연 어떤 용병술과 전술로 상대를 공략할지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박희중기자

“엄지성, 너의 꿈을 응원해”

오늘 광주시청서 공식 환송회

광주FC 프랜차이즈 스타로 영국 EFL 소속 스완지시티로 이적이 확정된 엄지성이 팬들과 마지막 만남의 자리를 갖는다.

광주FC 구단은 4일 “‘엄지성, 너의 꿈을 응원해’라는 주제로 5일 오후 7시30분부터 광주시청 2층 무등홀에서 엄지성 선수 공식 환송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송회에는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를 비롯

한 구단 관계자들과 팬 등 12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엄지성 선수 인사, 활약상을 담은 기념영상 시청, 엄지성 선수 소감 발표에 이어 팬들이 꽃다발과 응원 문구를 담은 롤링페이퍼를 전달한다. 이어 엄지성 선수와 팬들의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갖고 팬사인회와 하이파이브로 뜻깊은 자리를 마무리 한다. /박희중기자



지난해 열린 ‘제2회 광주시당구연맹 박종규회장배 전국3쿠션 당구대회’ 경기 모습. <광주시당구연맹 제공>

전국 아마 당구인 ‘빛고을 열전’

제3회 광주당구연맹회장배 전국3쿠션 대회 내일 개막

우수상금 1천500만원 최대 규모
가수 현진영·NRG 등 축하공연도

국내 아마추어 대회 최대 규모의 ‘당구 동호인 축제’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제3회 광주시당구연맹 박종규회장배 전국3쿠션 당구대회’가 6-7일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개최된다. 광주시체육회와 광주시당구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 동호인 1천24명이 참가한다. 연맹 선수와 프로당구협회(PBA) 선수를 제외한 순수 동호인만 출전할 수 있다. 경기종목은 3쿠션 개인전으로 6일과 7일 중복 출전이 가능하다. 이번 대회 광주 출전 선수 가운데 유력한 우승 후보로는 이우동(광주다모동호회)이 꼽힌다. 태백에서 참가하는 조남성(태백에이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제1회 대회부터 3년 연속 참가한 그는 본선에서 탈락의 아픔을 겪었지만 올해는 반드시 입성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역에서 처음 개최하는 체육관 당구대회로 빛고을체육관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18곳의 당구장에서 예선을 진행한다. 빛고을체육관에는 최고의 당구대로 평가받고 있는 MIK50 테이블 16대를 설치해 주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인근 대대전용구장을 보조구장으로 확보했다. 상금 규모 역시 아마추어대회 역대 최고를 자랑한다. 우수 상금은 1천500만원 상당으로 현금 1천만원과 500만원 상당의 MP유가 지급된다. 준우승은 60만원 상당(현금 30만원·30만원 상당의 MP유가)이 지급된다. 7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경품 추첨과 원조 합참 가수 현진영, 1세대 한류 그룹 NRG의 축하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박종규 광주시당구연맹회장은 “늘 응원해 주고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와 인사를 드린다”며 “대회를 통해 당구 종목 활성화와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강형구 회장·공갑석 부장·박한솔 지도자

대한체육회장상 수상

광주·전남 체육인 3명이 체육유공자로 선정돼 대한체육회장상을 수상한다.



광주시·전남도 체육회는 4일 “강형구 전남농구협회 회장, 공갑석 전남도체육회 홍보마케팅부장, 박한솔 광주시체육회 스퀘시 지도자가 ‘대한체육회 창립 104주년 기념 체육유공자’ 표창 대상자로 선정돼 오는 11일 열리는 ‘대한체육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에서 수상한다”고 밝혔다.

체육유공자 표창은 대한체육회가 대한민국의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성과에 대해 보상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수여하는 상이다. 대한체육회는 전문체육진흥 분야 4부분, 생활체육진흥 분야 2부분, 학교체육진흥 분야, 해외동포체육진흥 분야 등 총 4개분야 8개 부문에서 유공자를 추천받아 최종 1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전문체육 진흥분야 회원중목단체육 성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강형구 회장은 2008년부터 전남농구협회장으로 재임하면서 4여년에 이르는 발전기금 출연을 비롯해 농구종목의 전담체육대회 정식종목 채택 기여 등 전남농구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또한 전남도체육회 이사로서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2천8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전남체육 진흥에도

크게 일조하고 있다. 공갑석 부장은 2020년부터 지난 5월 12일까지 스포츠클럽육성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36개)의 스포츠클럽(종합형 19개, 한종목 17개) 선정 및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생활체육진흥 분야 지방체육 육성 부문 수상자로 결정됐다. 박한솔 지도자는 광주 스쿼시 대표팀 선수로 활약하며 스쿼시 저변 확대에 기여했고, 2016년 초등부 지도자를 시작으로 고등부, 실업부 등 꿈나무 선수 육성과 대표팀 선수 육성에 전념했다. 2019년 광주시체육회 전문체육지도자로 활동하며 우수선수를 적극적으로 발굴 양성, 다수의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해 2023 밴디고 국제오픈 스쿼시 선수권대회 우승, 제16회 코리아 시니어오픈 스쿼시 챔피언십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엘리트스포츠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선수 육성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수상은 오는 11일 올림픽파크텔 올림픽아홀에서 열리는 ‘대한체육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되는 등 전남체육 진흥에도 /박희중기자

‘불멸의 양현종’ 500경기 출장 ‘...ing’

이강철, 최영필, 조규제 이어 KIA 선수로는 4번째 기록
송진우, 장원준 이어 11시즌 연속 100이닝 달성도 ‘눈앞’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투수’ 양현종이 KBO 리그 통산 500경기 출장 대기록을 달성했다. 양현종은 4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서 선발 투수로 등판, KBO 통산 55번째이자 KIA 소속 선수로는 이강철(602), 최영필(549), 조규제(508)에 이어 4번째로 500경기 출장 기록을 채웠다.

지난달 18일 LG전에 선발 등판한 양현종은 왼쪽 팔꿈치 저림 증상이 나타나 5회를 마치고 보호 차원에서 교체됐고, 이후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되면서 15일 만인 이날 삼성전에 출전했다. 2007년 데뷔 후 KIA의 에이스이자 든든한 1선발로 활약해온 양현종은 2013 시즌을 제외하고는 매년 30경기 전후로 꾸준히 등판했다. 통산 500경기 등판을 달성한 투수 중 가장 많은 선발 등판 경기수와 선발승을 기록하며, 직전 등판까지 499경기 중 398경기에 선발투수로 출장, 172승을 달성하고 2천424이닝을 소화했다. 또한, 지난달 6일 광주 롯데전에서는 역대 2번째로 2천탈삼진을 기록하며 대투수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이와 함께 양현종은 3일 현재 KBO 통산 3번째로 11시즌 연속 100이닝 투구 기록 달성도 눈앞에 두고 있다. 직전 등판까지 91%이닝을 던진 양현종은 송진우(전 한화), 장원준(전 두산)만이 보유하고 있던 기록에 7년 만에 3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특히 9년 연속 170이닝 투구 기록은 그의 전매특허이자, KBO 리그 최초다. 양현종은 2014년 171이닝을 시작으로 매 시즌 170이닝 이상을 던졌다. 2016시즌엔 200%이닝을 책임지며 개인 한 시즌 최다 이닝을 소화했다. 2020시즌에도 172%이닝을 던진 양현종은 2021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며 잠시 기록 행진을 쉬어갔다. 1년 만에 KBO 리그에 복귀한 2022년에는 175%이닝을 소화했고, 지난해에도 171이닝을 던지며 기록을 이어갔다. 올해도 10년 연속 170이닝 투구 기록 달성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지난 4월25일에는 송진우(210승 153패)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통산 170승 고지를 밟으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KBO 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 양현종은 불멸의 기록을 세워 나가고 있다. /주흥철 기자

역대 연속 시즌 100이닝 이상 투구 달성 선수 (3일 현재)

| 연속 시즌 | 선수명 | 팀 | 시작 연도 | 종료 연도 | 비고 |
|-------|-----|--------|-------|-------|---------------|
| 13 | 송진우 | 한화 | 1994 | 2006 | |
| 11 | 장원준 | 롯데·두산 | 2005 | 2017 | 2012, 2013 제외 |
| | 정삼흠 | MBC·LG | 1987 | 1996 | |
| | 이강철 | 해태 | 1989 | 1998 | |
| 10 | 조계현 | 해태·삼성 | 1989 | 1998 | |
| | 정민철 | 빙그레·한화 | 1992 | 2003 | 2000, 2001 제외 |
| | 양현종 | KIA | 2013 | 2023 | 2001 제외·진행중 |

